

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6>농가 경쟁력 확보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는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계화 모델 정착...일손 부족 해소

해남 땅끝농협...마늘 기계화 육성 사업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사업 선정
파종·수확기 등 장비 103종 갖춰
인건비 70% 절감·시간단축 효과

마늘은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9월 씨앗을 뿌리는 파종부터 이듬해 5월 말~6월 초 수확까지 10개월 간 손이 많이 가는 탓에 고령층이 농사짓기 힘든 작물로 꼽힌다. 마늘을 심는 것부터 검은 비닐로 덮고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선택받은 모종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말칭’ 작업, 틈틈이 비로 주고 잡초 제거하면서 봄이면 새로 난 마늘 중 뽑아주는 일 등 허리를 펴고는 할 수 없는 일 뿐이다.

수확도 마찬가지다. 상품성 떨어질까 일일이 밭을 왔다갔다하며 마늘 줄기를 들어올려 뽑아 놓고 일주일 간 가지런히 말려뒀다가 다시 마늘 줄기를 하나씩 잘라 내는 일까지 사람 손이 닿아야 한다. 선별 작업도 꼼꼼함이 필요하다. 불량 마늘이나 이물질을 손으로 분류해야 하고 마늘 쪽, 통마늘을 골라내는 일까지 사람 손이 안 닿는 게 없다.

이러다보니 기계화율은 66.1%(농촌진흥청)로 낮다. 마늘 파종·정식의 기계화율은 17.6%에 불과하고 비닐 피복은 57.0%, 수확도 59.7%에 그친다.

고된 노동력이 필요해 인건비도 1인당 14만원 이상 쪼야 하는데, 이마저도 매년 사람을 구하는데 애를 먹어 힘들다.

해남 땅끝농협이 마늘 기계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장 큰 이유다. 땅끝농협 송영석 조합장은 “기계로 파종 작업을 할 경우 330.5㎡(100평)에 4만원이 들어가 인력을 투입할 때 비



마늘 선별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송영석 해남 땅끝농협조합장.

용(13만 8000원)보다 9만 8000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지원사업’에 공모한 것도 송지면 마늘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높은 인건비 등의 어려움을 덜어내 보자는 취지에서다.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규모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면서 지역별로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땅끝농협은 지난 2023년 선정돼 2년 간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등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2029년까지 5년 간 농민 대신 마늘 농사에 필요한 일손을 덜어줄 기계 103종을 발린 뒤 150개 마늘 농가가 참여하는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기계를 운영할 인력으로 뽑았고 파종기·절단기·수확기·쪽분리기·통마늘 선별기 등을 갖췄다.

지난해부터 송지면 마늘 재배 면적(119.9ha·787개 농가) 중 60.4ha(293개 농가)에 걸쳐 기계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확기와 절단기, 통마늘 선별기 등을 사용중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 사람이 힘들게 뽑았던 마늘 줄기를 마늘 수확기가 밭을 지나가면서 뿌리까지 캐 올리는데, 반 나절이 걸릴 작업을 몇 분 안에 마무리하니 환호성이 나온다고 한다. 인력 작업보다 인건비를 7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땅끝농협 분석이다. 수확기인 이맘때는 지원 요청 농가들이 워낙 많아 새벽 5시께부터 돌아다니며 작업 진행 여부를 살피느라 몸이 부족할 정도라고 한다.

해남땅끝농협 송영석 조합장은 “수확한 마늘을 저장하면서 쪽분리 과정을 거쳐 껍질을 벗기고 크기를 선별해 세척, 포장한 뒤 간마늘로 출하하는 전 과정도 기계화로 진행하면서 경제성도 높아졌다”면서 “마늘 기계화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초고령화 시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경쟁비를 낮추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득향상 등 논콩 재배 ‘1석 4조’ 효과

영암 군서농협...논콩 일괄 대행 사업

파종·방제·수확·판매까지 주도
농기계·전문인력 확보 체계적 관리
재배 5년 만에 효자 작목 부상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농촌에 젊은 농민들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일은 힘든데 수익 내기도 어려워서다. 쌀은 더하다. 지을수록 적자다.

쌀값이 떨어지고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14만 7738ha로, 전년도 14만 9878ha보다 줄었다. 올해도 1만 5831ha를 감축하라는 게 정부 계획이다.

‘쌀 대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라는 것인데, 말이야 쉽다’ 수심 년 해오던 농사를 어떻게 쉽게 바꾸나. 생산비와 노동력도 훨씬 많이 드는데, 실패 나섰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는 없지 않느냐.

영암군서농협은 이 같은 지역 농민들의 고민을 앞장서 짚어지고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준 케이스다.

군서면만 해도 1275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전체 경지면적(2470ha)의 83%에서 논 농사(2047ha)를 짓는데다, 고령화까지 피해가지 못하면서 수익을 내지도, 농사일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논에 벼 대신해 콩을 재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9년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6611.5㎡(2000평)으로 시작했다. 대신, 파종부터 방제, 수확, 판매까지 농협이 주도해 일괄 농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지역에 규모화, 집단지원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농가와 위탁 영농식 농작업 계약을 맺었다. 농협이 재배기술과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기자재·인력을 확보하고 일괄 지원키로 하고 트랙터



논콩 재배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박현규 영암 군서농협 조합장.

<군서농협 제공>

와 콤팩트, 콩 파종기 등 농기계와 전문인력(3명)도 확보했다.

참여농가에게는 마지막(200평)당 50만원의 최저 소득을 보장키로 약속했고 공동 생산·선별·판매·분배 등을 통해 나머지 수익도 재배비키로 했다.

재배 기술이 부족해 990㎡(300평) 생산량이 210kg에 그쳤던 초기와 달리, 생산량이 390kg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생산량 전량(179 t)을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판매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단지를 통합 관리하면서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고 생산비도 기존보다 약 15%가량 절감됐다.

재배단지도 5년 만인 지난해 74ha(22만 3850평)까지 무려 100배가 넘게 확대됐다. 단지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농민들도 106 농가(56ha)로 늘어나는 등 논콩이 군서농협과 군서면을 대표하는 효자 작목으로 떠올랐다.

전효일 군서농협 전무는 “논콩을 재배하게 되면서 쌀 수급 안정과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향상 등 1석 4조의 효과를 올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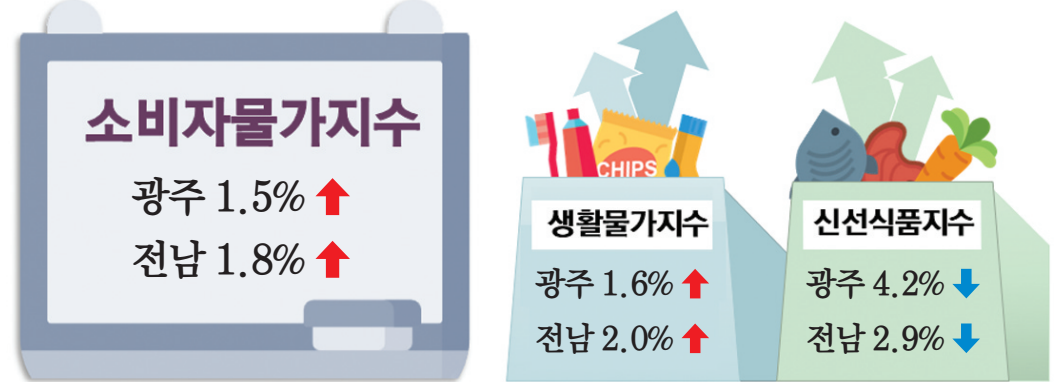
새로운 작물 재배의 자신감을 농민들 심어주면서 ‘스타’ 농협의 명성도 얻었다. 농림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하는 ‘국산 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는 2020년부터 장려상(2회), 우수상에 이어 대상(2024년)까지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박현규 영암 군서농협 조합장은 “효자 작목인 논콩 일괄 영농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재배 면적을 3년 뒤 100ha까지 늘리고 군서농협 자체 브랜드 개발에 나서는 한편, 비가림시설·농기계창고 등을 포함한 현대화된 선별시설까지 갖춰 전국 최고의 논콩 재배단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동월대비>



물가 안정세에도 앓아지는 서민 지갑

소비자물가 광주 1.5%·전남 1.8% 상승...보험료·외식품 ‘쑥’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하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험료 등 사회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3%를 넘겨 서민들의 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광주지역 5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올랐다.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19.18로 1년전보다 1.6% 높았다. 생활물가지수는 식품(2.3%)과 식품외(1.1%) 등 모든 분야에서 올랐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은 정부의 물가 안정책 및 작황 개선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12.4%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36.8%)와 사과(-18.0%)가 전년보다 떨어졌고, 최근 제철을 맞은 참외는 1달전보다 34.9% 하락했다.

다만 외식비와 각종 서비스 비용이 올랐다. 광주 외식 물가지수는 5월 기준 125.24로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지역 외식물가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생선회(외식·11.2%), 햄버거(8.9%), 도시락(8.4%), 해장국(7.7%) 등이 올랐다. 서비스 비용으로는 보험서비스료(16.3%), 사업대납입금(3.7%) 등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8에서 117.16으로 1.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0% 올랐는데, 식품(2.6%)과 식품외(1.6%) 모두 올랐다.

전남 역시 신선과실지수는 10.3%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참외가 25.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수박(-24.2%), 사과(-14.3%)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서비스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보험서비스료는 1년전보다 16.3% 올랐고, 시내버스료(13.1%), 구내식당식비(6.3%), 사업대납입금(3.7%) 등의 물가가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5000원에 갯벌 1평”...현대백화점 기부캠페인

다음달 20일까지 1인당 최대 3평 후원... ‘내 갯벌 갖기’ 진행

현대백화점은 “환경의날(6월 5일)을 맞아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미션 파서블! 갯벌 지킴이 캠페인’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과 함께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라미나(LAMINA) 게임을 선보인다.

라미나는 멸종 위기 동물과 서식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현대백화점이 제작한 생물 다양성 슬로건으로,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ANIMAL)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

라미나 게임은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자연스럽게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요

갯벌에 대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백화점은 또 월드비전과 ‘내 갯벌 갖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졸포만 인근 갯벌이다. 고객이 갯벌 3.3㎡당 1만5000원을 기부하면 현대백화점이 같은 금액을 후원한다. 1인당 최대 9.9㎡를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갯벌 오염 정화 활동에 활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내 ‘내 갯벌 갖기’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재명 정부’ 축포...코스피 상승 랠리

2.7%오른 2770...연고점 경신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증시 상승세를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데 힘입어 새 정부 첫날부터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자에게 따르면 이날 코스피가 장중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71.87p(2.66%) 오른 2770.84로 장을 마감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이전 연고점은 지난 5월 29일 2720.64다.

198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최근 유권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3.1%)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3.0%)을 비롯해 모두 6차례 대선 이후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였다.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3대 대선으로, 대선 이후 한달간 주가가 24.1% 급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16.6% 올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1992년 14대 4.9%), 전두환 전 대통령(1981년 12대 2.1%) 때도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2년 16대 -10.3%), 이명박 전 대통령(2007년 17대 -6.8%), 박근혜 전 대통령(2012년 18대 -0.3%) 때는 지수가 하락했다.

대선 1년 후를 기준으로 봐도 역시 6번은 상승하고 3번은 하락했는데 노태우(92.4%), 김영삼

(32.3%), 김대중(25.4%), 전두환(22.8%), 노무현(14.4%), 문재인(6.6%) 순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당선 후 1년간 코스피 지수가 36.8% 하락했다. 윤석열(-7.8%), 박근혜(-0.9%) 때도 약세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재환 유권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상승장에 대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고려하면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거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정책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미국발 관세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분위기다.

홍국증권은 ‘새 정부 출범과 시장의 기대’ 보고서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저평가된 한국시장 가치 재평가 움직임이 (지수에) 강하게 반영됐다”며 “역대 정부 출범 시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출발하는 최근 상황은 가치 회복을 표방하는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기대를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0.84	(+71.87)
↑ 코스닥	750.21	(+9.92)
↑ 금리 (국고채 39년)	2.414	(+0.074)
↓ 환율 (US D) <오후 4시 54분 기준>	1366.85	(-6.25)